

제약을 받지 않고, 소리에 따라 뜻을 구한다.’는 이론 원칙을 매우 명확히 제시하였고, 특히 중국어 同源詞의 ‘命名의 뜻’을 탐구하고, 大量의 同源詞 관계를 탐구하여 同源詞 研究가 詞源學 研究 範疇로 진입하여 科學化의 길로 올라 설 수 있게 하였다. 『廣雅疏證』은 비단 訓詁學의 중요 著作일 뿐만 아니라 同源詞 研究 자료의 보고이다.”²⁾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王念孫의 『廣雅疏證』이 同源詞 연구에 있어 매우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胡繼明은 『『廣雅疏證』同源詞研究』에서 『廣雅疏證』의 同源詞에 대해 분석하고, 376組의 同源詞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 연구 대상을 『廣雅』의 글자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王念孫이 그의 疏證에서 새롭게 밝힌 글자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王念孫이 밝힌 同源詞 면모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다.

王力은 『同源字典』에서 “무릇 소리와 뜻이 모두 비슷하거나, 음이 비슷하고 뜻이 같은, 혹은 뜻이 비슷하고 음이 같은 글자들을 同源字라고 한다.”³⁾라고 하고, 또 “通假字는 同源字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同義詞나 뜻이 서로 비슷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로 ‘蚤’와 ‘早’, ‘政’과 ‘征’을 들 수 있다. 우리는 벼룩의 ‘蚤’와 아침의 ‘早’가 무슨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정치의 ‘政’과 정벌의 ‘征’이 무슨 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 매우 어렵다.”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王力이 假借義로써 뜻이 같은 글자들을 同源字의 범주에서 제외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다만 王力이 말한 通假字는 뜻의 관계가 없는 假借義를 가진 通假字를 지칭했다고 볼 수 있는데, 本義와 引伸 관계가 있는 通假字의 경우는 王力의 “뜻이 비슷하고 음이 같은 글자들을 同源字라고 한다.”라는 정의에 따라 同源字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廣雅疏證』是清代乾嘉學者王念孫的代表作，書中十分明確地提出了‘訓詁之旨，本於聲音’，‘因聲求義，不限形體’的理論原則，特別是對漢語同源詞‘命名之意’的探討以及大量同源詞系聯的實踐，使同源詞的研究進入了詞源學的研究範疇，走上了科學化的道路。『廣雅疏證』不僅是訓詁學的經典著作，而且是同源詞研究材料的寶藏。”- 『『廣雅疏證』中的同源詞研究』，395쪽.

3) “凡音義皆近，音近義同，或義近音同的字，叫做同源字。”- 王力，『同源字典』，商務印書館，1991年，3쪽.

4) “通假字不是同源字，因為它們不是同義詞，或意義相近的詞。例如‘蚤’和‘早’，‘政’和‘征’。我們不能說，跳蚤的‘蚤’和早晚的‘早’有什麼關係，也很難說政治的‘政’和征伐的‘征’有什麼必然的關係。”- 위의 책，5쪽.

篇에서 '孔子는 그가 없는 것을 보고 가서 인사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뜻이 '覲'와 같다."⁵⁾라고 하여 '瞶'(*djæg)⁶⁾를 '覲'(*djæg)의 同字로 풀이하였다.

『說文』의 見部와 目部に 모두 '覲'와 '瞶'가 없다. 『廣韻』에서 "覲, 瞶로도 쓴다."⁷⁾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瞶'가 '覲'의 異體字임을 알 수 있다.

2) 瞶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瞶			瞶	瞶

『廣雅疏證·釋詁一』에서 '覲'에 대해 "'覲'은 '閒'의 뜻이다. 卷3에서 '閒, 살피다.'라고 하였다. 『方言』에서 '瞶, 살피다. 吳揚과 江淮의 사이에서 瞶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孟子·離婁』篇에서 '왕이 사람을 시켜 夫子를 살피보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注에서 '瞶, 보다.'라고 하였다. '瞶'은 '覲'과 같다."⁸⁾라고 하여 '瞶'(*grian)을 '覲'(*krian)의 同字로 풀이하였다.

『說文·目部』에서 "瞶, 눈 치뜨다. '目'의 뜻을 따르고, '閒'의 소리를 따른다. 江淮의 사이에서 '眇'을 '瞶'이라고 하였다."⁹⁾라고 하였다. 『說文解字注·目部』에서 '瞶'에 대해 "引伸되어 '엿보다'의 뜻이다. 『孟子』의 '왕이 사람을 시켜 夫子를 엿보게 하였다.'와 같다."라고 하여 '엿보다'를 '瞶'의 引伸義로 풀이하였다. 『說文·見部』에는 '覲'字가 없다. 『康熙字典』에서 '覲'에 대해 "'瞶'과 같다. 『博雅』에서 '보다.'라고 하였다."¹⁰⁾라고 하였는데, '瞶'이 '覲'의 異體字임을 알 수 있다.

5) "『玉篇』, 『廣韻』音瞶, 曹憲音時, 各本覲, 譌作覲. 郎奎金本又改音內時字爲瞶字. 其謬滋甚. 惟影宋本作覲. 『玉篇』, 『廣韻』竝云: '覲, 視也.' 『集韻』, 『類篇』: '覲, 又音時.' 引『廣雅』: '覲, 視也.' 『釋言』篇云: '時, 伺也.' 『論語·陽貨』篇: '孔子時其亡也, 而往拜之.' 義與覲同."
 6) 東方語言學(<http://www.eastling.org/>)_上古音查詢_李方桂.
 7) "覲, 或作瞶."
 8) "覲之言閒也. 卷三云: '閒, 覲也.' 『方言』: '瞶, 眇也. 吳揚江淮之間曰瞶.' 『孟子·離婁』篇: '王使人瞶夫子.' 注云: '瞶, 視也.' 瞶與覲同."
 9) "瞶, 戴目也. 从目閒聲. 江淮之間謂眇曰瞶."

3) 覘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眡	眡			覘	覘

『廣雅疏證·釋詁一』에서 '眡'에 대해 “'眡'은 아래의 '覘'字와 같다. 『爾雅』에서 '覘, 보다.'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眡, 눈을 비껴 보다.'라고 하였고, '覘, 비껴 보다. 籀文은 “覘”으로 적는다.'라고 하였다. 『周語』에서 '옛날에 大史가 순시할 때 땅을 비껴 보았다.'라고 하였는데, 韋昭의 注에서 '覘, 보다.'라고 하였다. 『魏策』에서 '지형의 험준함을 나아가 보았다.'라고 하였다. 重言하면 '眡眡'이라고 하는데, 「釋詁」에 뜻이 보인다.”¹¹⁾라고 하여 '覘>(*mrik)을 '眡(*mrik)의 同字로 풀이하였다.

『說文·目部』에서 “眡, 눈을 비껴 보는 것이다. '目'의 뜻을 따르고, '辰'의 소리를 따른다.”¹²⁾라고 하였고, 「辰部」에서 “覘, 비껴 보다. '辰'과 '見'의 뜻을 따른다. '眡'은 籀文이다.”¹³⁾라고 하였다. 『定聲·解部』에서 '眡'에 대해 “살펴보면, '覘'의 或體임에 틀림없다. '覘'의 或體인 '眡'字는 '眡'의 오류로 의심된다. 『廣雅·釋詁一』에서 '眡, 보다.'라고 하였다. 『漢書·揚雄傳』에서 '음성한 周 왕실의 크나큰 안녕을 찾다.'라고 하였는데, 注에서 '바로 “覘”字이다.'라고 하였다.”¹⁴⁾라고 하였다. 朱氏의 풀이에 따르면, '覘'이 '眡'의 異體字임을 알 수 있다.

10) “與眡同. 『博雅』: '視也.’”

11) “眡與下覘字同. 『爾雅』: '覘, 相也.’ 『說文』: '眡, 目財視也.’ '覘, 袞視也. 籀文作覘.’ 『周語』: '古者, 大史順時覘土.’ 韋昭注云: '覘, 視也.’ 『魏策』云: '前眡地形之險阻.’ 重言之則曰眡眡, 義見『釋詁』.”

12) “眡, 目財視也. 从目辰聲.”

13) “覘, 袞視也. 从辰从見. 眡, 籀文.”

14) “按, 當爲覘之或體. 覘篆或體眡字, 疑卽眡之誤. 『廣雅·釋詁一』: '眡, 視也.’ 『漢書·揚雄傳』: '眡隆周之大寧.’ 注: '卽覘字.’”


4) 窺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覷				窺

『廣雅疏證·釋詁一』에서 '覷'에 대해 "覷는 『集韻』에서 『埤倉』을 인용하여 '覷,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荀子·非十二子』篇에서 '覷覷然'이라고 하였는데, 楊倞의 注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覷'와 '窺'는 소리와 뜻이 서로 비슷하다."¹⁵⁾라고 하여 '窺>(*khwjar)를 '覷>(*kwjarh)의 聲義相近字로 풀이하였다.

『說文·目部』에 '覷'는 없다. 「穴部」에서 "窺,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 '穴'의 뜻을 따르고, '規'의 소리를 따른다."¹⁶⁾라고 하였다. 『定聲·解部』에서 '窺'에 대해 "글자를 '覷'로도 적는다. 『廣雅·釋詁一』에서 '覷, 보다.'라고 하였다. 『埤倉』에서 '覷,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모양'이라고 하였다."¹⁷⁾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窺'이 '覷'의 異體字임을 알 수 있다.

5) 伺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覷				伺

『廣雅疏證·釋詁一』에서 '覷'에 대해 "覷는 『方言』에서 '覷, 보다. 江北에서는 '覷'라고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글자를 '伺'로 적기도 하고 '司'로 通用해 쓰

15) "覷者, 『集韻』引『埤倉』云: '覷, 眇視兒.' 『荀子·非十二子』篇: '覷覷然.' 楊倞注云: '小兒之貌. 覷與窺, 聲義相近也.'"
 16) "窺, 小視也. 从穴規聲."
 17) "字亦作覷. 『廣雅·釋詁一』: '覷, 視也. 『埤倉』: '覷, 眇視兒.'"

기도 한다.”¹⁸⁾라고 하여 ‘伺’(*stjæg)를 ‘覘’(*stjæg)의 或字로 풀이하었다.

『說文·人部』에서 “伺, 바라보다. ‘人’의 뜻을 따르고, ‘司’의 소리를 따른다.”¹⁹⁾라고 하였다. 『見部』에 ‘覘’는 없다. 『集韻』에서 ‘覘’에 대해 “원래 ‘伺’로 썼다.”²⁰⁾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伺’이 ‘覘’의 異體字임을 알 수 있다.

6) 睪, 𥇑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睪				睪, 𥇑

『廣雅疏證·釋詁一』에서 ‘睪’에 대해 “睪는 『方言』에서 ‘서로 몰래 보다. 南楚에서는 ‘𥇑’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하였는데, 注에서 ‘또한 ‘𥇑’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𥇑’와 ‘睪’는 말이 전환된 것이다. 『玉篇』에서 ‘𥇑, 보다.’라고 하였다. 『廣韻』에서 ‘𥇑’로 적었다. 글자가 모두 ‘睪’와 같다. 각 본에서 ‘𥇑’로 잘못 적었는데, 지금 바로잡는다.”²¹⁾라고 하여 ‘睪’(*ljær)와 ‘𥇑’(*ljær)를 ‘睪’(*ljær)의 同字로 풀이하었다.

『說文·目部』에 ‘睪’, ‘𥇑’, ‘𥇑’ 등의 글자는 없다. 『康熙字典·目部』에서 ‘𥇑’에 대해 “『集韻』에서 “倫”과 “迫”의 反切音이다. 모두 平聲이다. 보는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類篇』에서 ‘𥇑’, “睪”로 적기도 한다.’라고 하였다.”²²⁾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𥇑’, ‘𥇑’, ‘睪’ 3자가 모두 異體字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 “覘者, 『方言』: ‘覘, 視也. 自江而北或謂之覘.’ 字或作伺, 通作司.”

19) “伺, 候望也. 从人司聲.”

20) “本作伺.”

21) “睪者, 『方言』: ‘凡相竊視, 南楚或謂之𥇑.’ 注云: ‘亦言𥇑也.’ 𥇑, 睪, 語之轉. 『玉篇』: ‘𥇑, 視也.’ 『廣韻』作𥇑. 字並與睪同. 各本譌作睪, 今訂正.”

22) “『集韻』: ‘倫迫切, 並類平聲. 視貌.’ 『類篇』: ‘或作𥇑睪.’”

7) 覲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覲			覲	覲

『廣雅疏證·釋詁一』에서 '覲'에 대해 “覲은音が‘七’과‘亦’의反切이다. 글자가‘賁’을따른다. 私覲의‘覲’과‘賁’을따르는것이 다르다. 曹憲의音은‘狄’으로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集韻』과『類篇』에서‘覲’, “七”과“迹”의反切音이다. 又音이“狄”이다. 보다. “覲”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모두 曹憲의 잘못을 되풀이한 것이다. 『玉篇』을 살펴보면 覲, “達”과“寂”의反切音이다. 보다., ‘覲’, “七”과“亦”의反切音이다. 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에 근거하여 분별하고자 한다.”²³⁾라고 하여 ‘覲’(*dǎkw)을 ‘覲’(*dǎkw)의 同字로 풀이하였다.

『說文』에는 ‘覲’이 없다. 「見部」新附字에 ‘覲’이 있는데, “覲, 보다. ‘見’의 뜻을 따르고, ‘賁’의 소리를 따른다.”²⁴⁾라고 하였다. 『集韻』과『類篇』이 “‘覲’과‘覲’은 같다.”라고 한 것에 따르면 ‘覲’이 ‘覲’의 異體字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 覲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覲	覲			覲	覲

『廣雅疏證·釋詁一』에서 ‘覲’에 대해 “‘睥’와‘睥’는 哀公13年『左傳』에서‘나와 褐之父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였는데, 杜預注에서‘覲, 보다.’라고 하였다. 『說



23) “覲, 音七亦反. 字從賁. 與私覲之覲, 從賣者異. 曹憲音狄, 非也. 『集韻』, 『類篇』: ‘覲, 七迹切, 又音狄. 見也. 與覲同.’ 竝踵曹憲之誤. 考『玉篇』: ‘覲, 達寂切. 見也.’ ‘覲, 七亦切. 覲也.’ 今據以辨正.”

24) “覲, 見也. 從見賣聲.”

文』에서 '睨, 겹눈질하다.', '覘, 옆으로 보다.'라고 하였다. 『史記·信陵君』傳에서 '겹눈질하다.'라고 하였고, 『灌夫』傳에서 '두 궁 사이를 겹눈질했다.'라고 하였다. 『索隱』에서 『埤倉』을 인용하여 "睨睨는 옆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모두 글자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것이다. 卷2에서 '覘倪, 겹눈질하다.'라고 하였다. 이 역시 그 뜻이 '睨睨'와 같다."²⁵⁾라고 하여 옆으로 보는 '覘>(*ŋih)로써 겹눈질하는 '睨>(*ŋih)를 풀이하었다.

『說文·目部』에서 "睨, 옆으로 보다. '目'의 뜻을 따르고, '兒'의 소리를 따른다."²⁶⁾라고 하였고, 『見部』에서 "覘, 옆으로 보다. '見'의 뜻을 따르고, '兒'의 소리를 따른다."²⁷⁾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睨'와 '覘'가 『說文』에서 서로 다른 부수에 따로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定聲·解部』에서 '覘'을 '睨' 뒤에 異體字로 수록하여 "내가 살펴보면 마땅히 '睨'의 或體임이 틀림없다. 이제 여기에 수록한다."²⁸⁾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朱駿聲이 '覘'을 '睨'의 異體字로 풀이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昏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員方鼎		眊				昏

『廣雅疏證·釋詁一』에서 '眊'에 대해 "眊는 『說文』에서 '眊, 보는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玉篇』에서 '音은 "上"과 "支"의 反切이다.'라고 하였다. 『廣韻』에서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하였다. 『文選』의 馬融 『長笛賦』에서 '特麇昏眊'라고 하였는

25) "睨, 睨者, 哀十三年『左傳』: '余與褐之父睨之.' 杜預注云: '睨, 視也.' 『說文』: '睨, 袞視也.' '覘, 旁視也.' 『史記·信陵君』傳: '俛倪.' 『灌夫』傳: '辟倪兩宮間.' 『索隱』引『埤倉』云: '睨睨, 邪視也.' 竝字異而義同. 卷二云: '覘倪, 袞也.' 義亦與睨睨同."

26) "睨, 袞視也. 从目兒聲."


27) "覘, 旁視也. 从見兒聲."

28) "按, 當爲睨之或體. 今附于此."

데, 李善의 注에서 ‘昏, 보다.’라고 하였다. “昏”와 “眡”는 같다.”²⁹⁾라고 하여 ‘昏>(*grjig)를 ‘眡>(*grjig)의 同字로 풀이하였다.

『說文』에는 ‘昏’가 없다. 「目部」에서 “眡, 보는 모양. ‘目’의 뜻을 따르고, ‘氏’의 소리를 따른다.”³⁰⁾라고 하였다. 『集韻』에서 ‘昏’에 대해 “眡와 같다.”³¹⁾라고 하였다. 『說文解字注·目部』에서 ‘眡’에 대해 “살펴보면, ‘昏’와 ‘眡’는 같은 글자이다.”³²⁾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昏’이 ‘眡’의 異體字임을 알 수 있다.

10) 矐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矐				矐

『廣雅疏證·釋詁一』에서 ‘矐’에 대해 “矐은 『說文』에서 ‘矐, 보는 것이 놀란 모양이다.’라고 하였고, ‘矐, 눈을 크게 뜨고 보다.’라고 하였다. 「東都賦」에서 ‘서쪽 도읍 손님이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하였다.’라고 하였다. ‘矐’과 ‘矐’은 모두 ‘矐’과 같다. 重言하면 ‘矐矐’이라고 하는데, 뜻이 「釋訓」에 보인다.”³³⁾라고 하여 ‘矐>(*hwjak)을 ‘矐>(*hwjak)의 同字로 풀이하였다.

『說文』에는 ‘矐’이 없다. 「目部」에서 “矐, 눈을 크게 뜨고 보다. ‘目’의 뜻을 따르고, ‘夔’의 소리를 따른다.”³⁴⁾라고 하였다. 『集韻』에서 ‘矐’에 대해 “‘矐’과 같다.”³⁵⁾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矐’이 ‘矐’의 異體字임을 알 수 있다.

29) “眡者, 『說文』: ‘眡, 視兒也.’ 『玉篇』: ‘音上支切.’ 『廣韻』云: ‘眡眡役目.’ 『文選·馬融·長笛賦』: ‘特麇昏眡.’ 李善注云: ‘昏, 視也.’ 昏與眡同.”
 30) “眡, 眡兒. 从目氏聲.”
 31) “與眡同.”
 32) “按, 昏, 眡一字也.”
 33) “矐者, 『說文』: ‘矐, 視遽兒也.’ ‘矐, 大視也.’ 「東都賦」云: ‘西都賓矐然失容.’ 矐矐, 竝與矐同. 重言之則曰矐矐, 義見「釋訓」.”
 34) “矐, 大視也. 从目夔聲.”
 35) “同矐.”

11) 覩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覩				覩

『廣雅疏證·釋詁一』에서 '覩'에 대해 "覩는 『說文』에서 '覩覩'에 대해 '엇보다'라고 하였다. 蔡邕이 『漢律賦』에서 '朝宗의 형세에 따른 조짐을 엿보다.'라고 하였다. 『文選·西征賦』注에서 『倉頡篇』을 인용하여 '狙, 엿보다.'라고 하였다. 『管子·七臣七主』篇에서 '따라가 엿보고 기꺼이 몰래 살폈다.'라고 하였다. 『史記·留侯世家』에서 '秦皇帝가 博浪沙에 있는 것을 몰래 살피 쳤다.'라고 하였는데, 集解에서 服虔의 『漢書』注를 인용하여 '狙, 엿보다.'라고 하였다. 모두 '覩'와 같다. 『周官·小司徒』에서 '무리를 이루어 쫓아가 염탐하였다.'라고 하였는데, 鄭注에서 '追, 도둑을 쫓다. 胥, 도적을 염탐하여 잡다.'라고 하였다. '胥'와 '覩' 역시 소리가 비슷하고 뜻이 같다. 『說文』의 '覩'는 '見'의 뜻을 따르고 '盧'의 소리를 따르는데, 각 본이 잘못되어 '覩'로 적고 있다. 지금 고쳐 바로잡는다."³⁶⁾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覩>(*tshjagh)가 '覩>(*tshjagh)의 譌字임을 알 수 있다.

『說文』에는 '覩'가 없다. 「見部」에서 "覩, 엿보다.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見'의 뜻을 따르고 '盧'의 소리를 따른다."³⁷⁾라고 하였다. 『字彙補』에서 '覩'에 대해 "'覩'와 같다."³⁸⁾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覩'이 '覩'의 異體字임을 알 수 있다.

36) "覩者, 『說文』: '覩覩.' 窺覩也. 蔡邕『漢律賦』云: '覩朝宗之形兆.' 『文選·西征賦』注引『倉頡篇』云: '狙, 伺候也.' 『管子·七臣七主』篇云: '從狙而好小察.' 『史記·留侯世家』: '狙擊秦皇帝博浪沙中.' 集解引服虔『漢書』注云: '狙, 伺候也.' 竝與覩同. 『周官·小司徒』: '以比追胥.' 鄭注云: '追, 逐寇也. 胥, 伺捕盜賊也.' 胥與覩, 亦聲近義同. 『說文』覩, 從見盧聲. 各本譌作覩. 今訂正."

37) "覩, 拘覩, 未致密也. 从見盧聲."

38) "與覩同."

12) 𨾏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𨾏				𨾏



『廣雅疏證·釋詁一』에서 '𨾏'에 대해 "𨾏은 『說文』에서 '𨾏, 서로 돌아보면서 간다.'라고 하였다. '𨾏'과 '𨾏'은 같다."³⁹⁾라고 하여 '𨾏'(*ran)이 '𨾏'(*ran)의 同字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 '𨾏'은 없다. 「目部」에서 "𨾏, 서로 돌아보면서 가다. '目'과 '延'의 뜻을 따른다. '延'은 소리도 나타낸다."⁴⁰⁾라고 하였다. 『定聲·乾部』에서 '𨾏'에 대해 "『廣雅·釋詁一』에서 '𨾏, 보다.'라고 하였다. 글자를 '𨾏'으로 쓰기도 한다."⁴¹⁾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𨾏'이 '𨾏'의 異體字임을 알 수 있다.

3. 假借字

王念孫은 張揖이 제시한 '視義字' 중 '𨾏, 略, 覩, 睥, 睨, 睇, 眈, 覷' 등 8字에 대해 '題, 略, 時, 俾, 辟, 輒, 倪, 夷, 啓, 狙, 胥' 등의 소리가 같고 그 本義가 완전히 다른 假借字로 풀이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題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題				題

39) "𨾏者, 『說文』: '𨾏, 相顧視而行也.' 𨾏與𨾏同."

40) "𨾏, 相顧視而行也. 从目从延, 延亦聲."

41) "『廣雅·釋詁一』: '𨾏, 視也.' 字亦作𨾏."

『廣雅疏證·釋詁一』에서 '題'에 대해 "題는 『說文』에서 '睨, 맞이하며 보다.'라고 하였다. 『小雅·小宛』篇에서 '저 척령새를 본다.'라고 하였다. 『毛傳』에서 '題, 보다.'라고 하였다. 班固의 「東都賦」에서 "「弦」은 「金」을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睨', '睨', '題'는 모두 통한다."⁴²⁾라고 하여 '題>(*dig)를 '睨>(*dig)의 通字로 풀이하였다.

『說文·見部』에서 "睨, 보이다. '見'의 뜻을 따르고, '是'의 소리를 따른다."⁴³⁾라고 하였고, 『定聲·解部』에서 "睨, 보다. '見'의 뜻을 따르고, '是'의 소리를 따른다. 『廣雅·釋詁一』에서 '題, 보다.'라고 하였다."⁴⁴⁾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題'의 本義가 '보이다', '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說文·頁部』에서 "題, 이마. '頁'의 뜻을 따르고, '是'의 소리를 따른다."⁴⁵⁾라고 하였다. 『說文解字注·見部』에서 '題'에 대해 "『小雅』에서 '저 척령새를 본다.'라고 하였는데, 傳에서 '題는 "보다'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題'는 '睨'의 假借字이다."⁴⁶⁾라고 하였다. 『定聲·解部』에서 '題'에 대해 "[假借] 또 '睨'로도 쓰인다. 『小爾雅·廣言』에서 '題, 보다.'라고 하였고, 『詩·小宛』에서 '저 척령새를 본다.'라고 하였다."⁴⁷⁾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題'의 本義가 '이마'이고, '보다'의 뜻이 '睨'을 假借하여 생긴 뜻을 알 수 있다.

2) 略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睨	略			睨	略

42) "題者, 『說文』: '睨, 迎視也.' 『小雅·小宛』篇: '題彼脊令.' 『毛傳』云: '題, 視也.' 班固「東都賦」云: '弦不睨金.' 睨, 睨, 題, 竝通."

43) "睨, 顯也. 从見是聲."

44) "睨, 顯也. 从見是聲. 『廣雅·釋詁一』: '題, 視也.'"

45) "題, 頷也. 从頁是聲."




46) "『小雅』: '題彼脊令.' 傳曰: '題, 視也.' 題者, 睨之假借字."

47) "[假借] 又爲睨. 『小爾雅·廣言』: '題, 視也.' 『詩·小宛』: '題彼脊令.'"

『廣雅疏證·釋詁一』에서 '略'에 대해 "略은 『方言』에서 '略, 보다. 吳揚 지역에서 "略"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郭璞의 注에서 '略, 音이 "略"이다. 지금의 中國에서 "目略"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宋玉의「神女賦」에서 '가늘게 결눈 질하여 보았다.'라고 하였다. '略과 '略'은 통한다."⁴⁸⁾라고 하여, '略>(*ljak)을 '略>(*ljak)의 通字로 풀이하였다.

『說文·目部』에서 "略, 결눈질하다. 『方言』에서 '略, 결눈질하다. 吳揚과 江淮 사이에서 "眇"이라고도 하고, "略"이라고도 한다.'라고 하였다. '目'의 뜻을 따르고, '各'의 소리를 따른다."⁴⁹⁾라고 하였다. 「田部」에서 "略, 土地를 경작하는 것이다. '田'의 뜻을 따르고, '各'의 소리를 따른다."⁵⁰⁾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略'의 本義는 '결눈질하다.'이고, '略'의 本義는 '土地를 경작하다.'로 그 뜻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定聲·豫部』에서 그 '略'에 대해 설명한 풀이에는 '略'을 假借한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3) 時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覩		 中山王 		時







『廣雅疏證·釋詁一』에서 '覩'에 대해 "『玉篇』과 『廣韻』의 音은 '時'이다. 曹憲의 音은 '時'이다. 각 판본에서 '覩'를 '覩'로 잘못 쓰고 있다. 郎奎金本에서 또 音 안의 '時'字를 고쳐 '睹'字로 쓰고 있는데, 그 잘못이 커진 것이 심하다. 오직 影印한 宋本이 '覩'로 적고 있다. 『玉篇』과 『廣韻』에서 모두 '覩, 보다.'라고 하였다.

48) "略者, 『方言』: '略, 視也. 吳揚曰略.' 郭璞注云: '略, 音略. 今中國亦云目略也.' 宋玉「神女賦」: '目略微眇.' 略與略通."
 49) "略, 眇也. 方言. 略, 眇也. 吳揚江淮之間或曰眇, 或曰略. 从目. 各聲."
 50) "略, 經略土地也. 从田各聲."

『集韻』과 『類篇』에서 '靚, 또 다른音が "時"이다.'라고 하고, 『廣雅』를 인용하여 '靚, 보다.'라고 하였다. 『釋言』篇에서 '時, 옛보다.'라고 하였다. 『論語·陽貨』篇에서 '孔子는 그가 없는 것을 보고 가서 인사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뜻이 '靚'와 같다."⁵¹⁾라고 하여 '靚>(*djæg)의音が '時'(*djæg)이고, '靚'의 '보다'의 뜻이 '時'의 '옛보다'의 뜻과 같다고 하였다.

『說文』의 見部와 目部에는 모두 '靚'와 '睥'가 없다. 단지 疏證에서 풀이하고 있는 것과 같이 『玉篇』, 『廣韻』, 『廣雅』의 釋義에서 그 本義가 '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說文·日部』에서 "時, 四時. '日'의 뜻을 따르고, '寺'의 소리를 따른다."⁵²⁾라고 하여 그 本義를 '四時'라고 하였다. 『定聲·頤部』에서 '時'에 대해 "[假借] 또 '司'로도 쓰인다. 『廣雅·釋言』에서 '時, 옛보다.'라고 하였다. 『論語』에서 '孔子가 그가 없음을 옛보았다.'라고 하였는데, 그 疏에서 '虎가 집에 없는 것을 옛본 것이다.'라고 하였다. 『莊子·齊物論』에서 '알을 보고 닭을 구하다.'라고 하였는데, 司馬의 注에서 '司夜는 닭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⁵³⁾ 이상으로 볼 때, '時'의 本義가 '四時'이고, '옛보다'의 뜻은 '伺'를 假借하여 생긴 뜻을 알 수 있다.

4) 俾, 辟, 賴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睥		 國差鑄		俾 辟 賴
					 大孟鼎		
					 晉公盆		

51) “『玉篇』, 『廣韻』音睥, 曹憲音時, 各本靚, 譌作靚. 郎奎金本又改音內時字爲睥字. 其謬滋甚. 惟影宋本作靚. 『玉篇』, 『廣韻』竝云: '靚, 視也.' 『集韻』, 『類篇』: '靚, 又音時.' 引『廣雅』: '靚, 視也.' 『釋言』篇云: '時, 伺也.' 『論語·陽貨』篇: '孔子時其亡也, 而往拜之.' 義與靚同.”

52) “時, 四時也. 从日寺聲.”

53) “[假借] 又爲司. 『廣雅·釋言』: '時, 伺也.' 『論語』: '孔子時其亡也.' 疏: '伺虎不在家時.' 『莊子·齊物論』: '見卵而求時夜.' 司馬注: '司夜, 謂雞也.’”

『廣雅疏證·釋詁一』에서 '睥'에 대해 “'睥'와 '睥'는 哀公13年『左傳』에서 '나와 褐之父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였는데, 杜預注에서 '睥, 보다.'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睥, 곁눈질하다.', '睥, 옆으로 보다.'라고 하였다. 『史記·信陵君』傳에서 '곁눈질하다.'라고 하였고, 『灌夫』傳에서 '두 궁 사이를 곁눈질했다.'라고 하였다. 『索隱』에서 『埤倉』을 인용하여 “'睥睥'는 옆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모두 글자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것이다. 卷2에서 '睥睥, 곁눈질하다.'라고 하였다. 이 역시 그 뜻이 '睥睥'와 같다.”⁵⁴⁾라고 하여 소리와 뜻이 같은 '俾>(*pjigx), '辟>(*pjik), '輒>(*pjigx) 등의 3字로써 '睥>(*pjigx)를 풀이하였다.

『說文·目部』에 '睥'는 없다. 단지 疏證의 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埤倉』의 뜻 풀이를 통해 그 本義가 '곁눈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說文·人部』에서 “'俾, 더하다. '人'의 뜻을 따르고, '卑'의 소리를 따른다. 일설에 따르면 '俾'는 '문지기'의 뜻이 있다.”⁵⁵⁾라고 하였고, 『辟部』에서 “'辟, 법. '卩'과 '辛'의 뜻을 따른다.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口'의 뜻을 따르는데, 법을 쓰는 사람을 뜻한다.”⁵⁶⁾라고 하였다. 『頁部』에서 “'輒, 머리를 숙이다. '頁'의 뜻을 따르고, '卑'의 소리를 따른다.”⁵⁷⁾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俾', '辟', '輒' 등의 3字에 원래 '보다'의 뜻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俾睥', '辟睥', '輒睥' 등에 쓰인 '俾', '辟', '輒' 등의 3字는 모두 '睥'의 假借字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倪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睥	睥			倪	倪

54) “'睥, 睥者, 哀十三年『左傳』: '余與褐之父睥之.' 杜預注云: '睥, 視也.' 『說文』: '睥, 褻視也.' '睥, 旁視也.' 『史記·信陵君』傳: '俾倪.' 『灌夫』傳: '辟倪兩宮間.' 『索隱』引『埤倉』云: '睥睥, 邪視也.' 竝字異而義同. 卷二云: '輒倪, 褻也.' 義亦與睥睥同.”

55) “'俾, 益也. 从人卑聲. 一曰俾, 門侍人.”

56) “'辟, 法也. 从卩从辛, 卩制其鼻也. 从口, 用法者也.”

57) “'輒, 傾首也. 从頁卑聲.”

『廣雅疏證·釋詁一』에서 '睨'에 대해 "睨와 睨는 哀公13年『左傳』에서 '나와 褐之父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였는데, 杜預注에서 '睨, 보다.'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睨, 곁눈질하다.', '覘, 옆으로 보다.'라고 하였다. 『史記·信陵君』傳에서 '곁눈질하다.'라고 하였고, 『灌夫』傳에서 '두 궁 사이를 곁눈질했다.'라고 하였다. 『索隱』에서 『埤倉』을 인용하여 "睨睨"는 옆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모두 글자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것이다. 卷2에서 '輒倪, 곁눈질하다.'라고 하였다. 이 역시 그 뜻이 '睨睨'와 같다."⁵⁸⁾라고 하여 '倪'(*ŋig)로써 '睨'(*ŋigh)를 풀이하였다.

『說文·目部』에서 "睨, 곁눈질하다. '目'의 뜻을 따르고, '兒'의 소리를 따른다."⁵⁹⁾라고 하였고, 『人部』에서 "倪, 더하다. '人'의 뜻을 따르고, '兒'의 소리를 따른다."⁶⁰⁾라고 하였다. 『定聲·解部』에서 '時'에 대해 "[假借] 또 '睨'로도 쓰인다. 『廣雅·釋詁二』에서 '輒, 흘겨보다.'라고 하였다. 『爾雅·釋魚』에서 '왼쪽으로 흘겨보아도 같지 않고, 오른쪽으로 흘겨보아도 같지 않다.'라고 하였다."⁶¹⁾라고 하였다. 『說文解字注·人部』에서 '倪'에 대해 "더하다. 그러한 즉 '倪' 역시 '더하다'의 뜻이다. 『孟子』에서 '오히려 그 깃발을 더했다.'라고 한 것과 같다. 假借하여 '嬰妮'의 '妮'로 쓰인다. 『爾雅』에서 '왼쪽으로 흘겨보아도 같지 않고, 오른쪽으로 흘겨보아도 같지 않다.'라고 하였다. 『左傳』의 注에서 '성 위에서 흘겨보았다.'라고 했는데, '倪'를 가차해 '睨'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⁶²⁾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倪'의 本義가 '더하다'이고, '흘겨보다'는 '睨'을 假借하여 생긴 뜻임을 알 수 있다.

58) "睨, 睨者, 哀十三年『左傳』: '余與褐之父睨之.' 杜預注云: '睨, 視也.' 『說文』: '睨, 褻視也.' '覘, 旁視也.' 『史記·信陵君』傳: '倪倪.' 『灌夫』傳: '辟倪兩宮間.' 『索隱』引『埤倉』云: '睨睨, 邪視也.' 竝字異而義同. 卷二云: '輒倪, 褻也.' 義亦與睨睨同."

59) "睨, 褻視也. 从目兒聲."

60) "倪, 倂也. 从人兒聲."

61) "[假借] 又爲睨. 『廣雅·釋詁二』: '輒, 倪褻也.' 『爾雅·釋魚』: '左倪不類, 右倪不若.'"

62) "倪也. 然則倪亦訓益也. 若『孟子』: '反其旄倪.' 借爲嬰妮之妮也. 『爾雅』: '左倪不類, 右倪不若.' 『左傳』注: '城上僻倪.' 借倪爲睨也."

6) 夷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睇	睇	 합17027	 南宮柳鼎	夷	夷

『廣雅疏證·釋詁一』에서 ‘睇’에 대해 “睇는 『方言』에서 ‘睇, 결눈질하다. 陳楚의 사이와 南楚 밖에서 ‘睇’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睇, 눈을 작게 뜨고 흘겨보다.’라고 하였다. ‘明夷卦의 六二에서 ‘왼쪽 정강이를 흘겨보다.’라고 하였는데, 鄭氏와 陸氏 모두 ‘睇’라고 썼다. 注에서 ‘옆으로 보는 것을 ‘睇’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夏小正』에서 ‘와서 燕나라에 투항하고 흘겨보았다.’라고 하였는데, 傳에서 “‘睇’는 결눈질하는 것이다. ‘眈’은 봄에 있어 집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內則」에서 ‘감히 흘겨보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鄭注에서 ‘睇, 기울여 보다.’라고 하였다.”⁶³⁾라고 하여 ‘明夷卦의 ‘夷’(*rid)을 ‘睇’(*thid)로 적었다고 풀이하였다.

『說文·目部』에서 “睇, 눈을 작게 뜨고 보다. ‘目’의 뜻을 따르고, ‘弟’의 소리를 따른다. 南楚 지역에서 결눈질하는 것을 ‘睇’라고 한다.”⁶⁴⁾라고 하였고, 「大部」에서 “夷, 평정하다. ‘大’와 ‘弓’의 뜻을 따른다. 동쪽 사람이다.”⁶⁵⁾라고 하였다. 『說文解字注·大部』에서 ‘夷’에 대해 “동쪽 사람이다. ‘大’와 ‘弓’의 뜻을 따른다. 각 판본에서는 ‘평정하다. “大”와 “弓”의 뜻을 따른다. 동쪽 사람이다.’라고 적고 있는데, 비천한 사람이 고친 것일 뿐이다. 지금 바로 잡는다.”⁶⁶⁾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夷’의 本義가 ‘동쪽 사람’으로 ‘눈을 작게 뜨고 보다.’의 뜻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63) “睇者, 『方言』: ‘睇, 眈也. 陳楚之間, 南楚之外曰睇.’ 『說文』: ‘睇, 目小褻視也.’ ‘明夷’, 六二: ‘夷于左股.’ 夷, 鄭陸竝作睇. 注云: ‘旁視曰睇.’ 『夏小正』: ‘來降燕乃睇.’ 傳云: ‘睇者, 眈也. 眈者, 視可爲室者也.’ 「內則」: ‘不敢睇視.’ 鄭注云: ‘睇, 傾視也.’”

64) “睇, 目小視也. 从目弟聲. 南楚謂眈曰睇.”

65) “夷, 平也. 从大从弓. 東方之人也.”

66) “東方之人也. 从大. 从弓. 各本作平也. 从大从弓. 東方之人也. 淺人所改耳. 今正.”

8) 狙, 胥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𠄎	覷			狙 胥	狙 胥

『廣雅疏證·釋詁一』에서 ‘覷’에 대해 “覷는 『說文』에서 ‘覷覷’에 대해 ‘엿보다’라고 하였다. 蔡邕이 『漢律賦』에서 ‘朝宗의 형세에 따른 조짐을 엿보다.’라고 하였다. 『文選·西征賦』注에서 『倉頡篇』을 인용하여 ‘狙, 엿보다.’라고 하였다. 『管子·七臣七主』篇에서 ‘따라가 엿보고 기꺼이 몰래 살폈다.’라고 하였다. 『史記·留侯世家』에서 ‘秦皇帝가 博浪沙에 있는 것을 몰래 살피 쳤다.’라고 하였는데, 集解에서 服虔의 『漢書』注를 인용하여 ‘狙, 엿보다.’라고 하였다. 모두 ‘覷’와 같다. 『周官·小司徒』에서 ‘무리를 이루어 쫓아가 염탐하였다.’라고 하였는데, 鄭注에서 ‘追, 도둑을 쫓다. 胥, 도적을 염탐하여 잡다.’라고 하였다. ‘胥’와 ‘覷’ 역시 소리가 비슷하고 뜻이 같다. 『說文』의 ‘覷’는 ‘見’의 뜻을 따르고 ‘盧’의 소리를 따르는데, 각 본이 잘못되어 ‘覷’로 적고 있다. 지금 고쳐 바로잡는다.”⁷¹⁾라고 하여, ‘狙’(*tshjag)과 ‘胥’(*sjag)에 대해 ‘覷’(*tshjagh)과 소리가 비슷하고 뜻이 같은 글자로 풀이하였다.

『說文·見部』에서 “覷, 엿보다.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見’의 뜻을 따르고 ‘盧’의 소리를 따른다.”⁷²⁾라고 하였다. 『定聲·豫部』에서 ‘覷’에 대해 “‘覷覷’는 ‘엿보다’이다. ‘見’의 뜻을 따르고, ‘盧’의 소리를 따른다. 『廣雅·釋詁一』에서 ‘보다’라고 하였다. 『通俗文』에서 ‘몰래 살피는 것을 覷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史記·留侯

71) “覷者, 『說文』: ‘覷覷.’ 窺覷也. 蔡邕『漢律賦』云: ‘覷朝宗之形兆.’ 『文選·西征賦』注引『倉頡篇』云: ‘狙, 伺候也.’ 『管子·七臣七主』篇云: ‘從狙而好小察.’ 『史記·留侯世家』: ‘狙擊秦皇帝博浪沙中.’ 集解引服虔『漢書』注云: ‘狙, 伺候也.’ 竝與覷同. 『周官·小司徒』: ‘以比追胥.’ 鄭注云: ‘追, 逐寇也. 胥, 伺捕盜賊也.’ 胥與覷, 亦聲近義同. 『說文』覷, 從見盧聲. 各本譌作覷. 今訂正.”

72) “覷, 覷覷也. 一曰拘覷, 未致密也. 从見盧聲.”

世家』에서 '몰래 살펴서 秦皇帝를 찼다.'라고 하였는데, '狙'로 찼다. 글자를 '覷'로도 찼다. 또 '覷'로 잘못 쓰기도 했다.〔假借〕疊韻連語로 쓰인다.『說文』에서 '옛보다.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⁷³⁾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覷'의 本義가 '옛보다'임을 알 수 있다.『說文·犬部』에서 “狙, 원숭이. 犬의 뜻을 따르고, 且의 소리를 따른다. '狙'를 '개'로 풀이하기도 한다. 사람을 무는 동물인데, 일설에 따르면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⁷⁴⁾라고 하였고, 『肉部』에서 “胛, 계장. 肉의 뜻을 따르고, 疋의 소리를 따른다.”⁷⁵⁾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狙'의 本義는 '원숭이'이고, '胛'의 本義는 '계장'으로 모두 '옛보다'의 뜻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狙'와 '胛'의 '옛보다'의 뜻은 '覷'와 '覷' 등을 假借하여 생긴 뜻을 알 수 있다.

4. 同源字

王念孫은 張揖이 제시한 '視義字' 중 '覷, 闕, 窺, 覷, 覷, 瞻, 睨, 瞻, 占, 眈' 등 10字에 대해 '眈, 瞰, 矚, 偵, 間, 司, 窺, 矚, 瞻, 矚, 佇' 등의 소리가 같거나 비슷하고 그 本義가 비슷한 同源字로 풀이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眈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眈	眈			眈	眈

73) “親覷, 闕覷也. 从見虐聲. 『廣雅·釋詁一』: ‘視也.’ 『通俗文』: ‘伏覷曰覷.’ 『史記·留侯世家』: ‘狙擊秦皇帝.’ 以狙爲之. 字亦作覷. 又誤作覷. 〔假借〕疊韻連語. 『說文』: ‘拘覷, 未致密也.’”
 74) “狙, 獲屬. 从犬且聲. 一曰狙, 犬也, 暫齧人者. 一曰犬不齧人也.”
 75) “胛, 蟹醢也. 从肉疋聲.”

『廣雅疏證·釋詁一』에서 '覿'에 대해 "覿는 『說文』에서 '睇, 맞이하며 보다.'라고 하였다. 『小雅·小宛』篇에서 '저 척령새를 본다.'라고 하였다. 『毛傳』에서 '題, 보다.'라고 하였다. 班固의『東都賦』에서 "“弦”은 “金”을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覿', '睇', '題'는 모두 통한다."⁷⁶⁾라고 하여 '睇>(*thianh)를 '覿>(*thianh)의 通字로 풀이하였다.

『說文·見部』에서 "覿, 보이다. '見'의 뜻을 따르고, '是'의 소리를 따른다."⁷⁷⁾라고 하였고, 『目部』에서 "睇, 맞이하며 보다. '目'의 뜻을 따르고, '是'의 소리를 따른다. '珥瑱'의 '瑱'과 같이 읽는다."⁷⁸⁾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覿'와 '睇'가 本義가 서로 비슷한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定聲·解部』의 '覿'와 '睇'에 대한 풀이에서는 서로 通假된 例가 보이지 않는다. 『文始·二』에서 '示'에 대해 "示는 또 남에게 보이다.'의 뜻이 있다. 이 때문에 다시 파생되어 '視'가 되었다. '보다'의 뜻이다. '支'音으로 旁轉되어 '覿'가 되어 '보이다'의 뜻을 갖는다. 派生되어 '睇'가 되는데, '맞이하며 보다.'의 뜻이다."⁷⁹⁾라고 하여, '覿'과 '睇'을 孳乳字로 풀이하였다.

2) 瞰, 闕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闕				瞰, 闕

『廣雅疏證·釋詁一』에서 '闕'에 대해 "闕, 아래의 '瞰'字와 같다. 글자를 '闕'으로도 쓴다. 『說文』에서 '闕, 보다.'라고 하였다. 『孟子·滕文公』篇에서 '陽貨는 孔子가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다. 趙岐의 注에서 '闕, 보다.'라고 하였다."⁸⁰⁾라고

76) "覿者, 『說文』: '睇, 迎視也.' 『小雅·小宛』篇: '題彼脊令.' 『毛傳』云: '題, 視也.' 班固『東都賦』云: '弦不睇禽.' 覿, 睇, 題, 竝通."

77) "覿, 顯也. 从見是聲."

78) "睇, 迎視也. 从目是聲. 讀若珥瑱之瑱."



79) "示又訓示人. 故復孳乳爲視, 瞻也. 旁轉支則爲覿, 顯也. 孳乳爲睇, 迎視也."

80) "闕, 與下瞰字同. 字亦作闕. 『說文』: '闕, 望也.' 『孟子·滕文公』篇: '陽貨闕孔子之亡.' 趙岐注云: '闕, 視也.'"

하여 '瞰>(*khamh)과 闕(*khamh)을 '闕(*khamh)의 同字로 풀이하였다.

『說文·門部』에서 “闕, 보다. ‘門’의 뜻을 따르고, ‘敢’의 소리를 따른다.”⁸¹⁾라고 하였다. 「目部」에 ‘瞰’과 闕이 모두 없다. 『康熙字典』에서 ‘瞰’에 대해 “『博雅』에서 ‘보다’라고 하였다. 『揚雄·校獵賦』에서 ‘동쪽으로 시선이 다할 때까지 보았다.’라고 하였다. 『班固·東都賦』에서 ‘四裔를 보고 경계를 막았다.’라고 하였다.”⁸²⁾라고 하였다. 『集韻』에서 闕에 대해 “‘瞰’과 같다. ‘覲’, ‘矚’과 모두 通用해서 쓴다.”⁸³⁾라고 하였다. 이상에 따르면 ‘瞰’과 闕은 異體字이며, 그 本義가 ‘보다’로 ‘闕’의 ‘보다’와 뜻이 통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瞰’과 闕이 ‘闕’의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3) 偵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窺				偵

『廣雅疏證·釋詁一』에서 ‘窺’에 대해 “窺는 『說文』에서 ‘窺, 바로 보다.’라고 하였다. 『後漢書·章帝八王』傳에서 ‘시중이 득실을 살펴보았다.’라고 하였는데, ‘偵’과 ‘窺’는 通한다.”⁸⁴⁾라고 하여 ‘偵>(*traŋh)을 ‘窺’(*thriŋ)의 通字로 풀이하였다.

『說文·穴部』에서 “窺, 바로 보다. ‘穴’ 안에 ‘正’과 ‘見’이 있는 것을 따른다. ‘正’은 소리도 나타낸다.”⁸⁵⁾라고 하였고, 「人部」의 新附字에 ‘偵’이 있는데, “묻다. ‘人’의 뜻을 따르고, ‘貞’의 소리를 따른다.”⁸⁶⁾라고 하였다. 鄭珍의 『說文新附考』에서 “살피다면, ‘偵’에는 ‘살피다’와 ‘묻다’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살피다’를 뜻하는 글자

81) “闕, 望也. 从門敢聲.”

82) “『博雅』: ‘視也.’ 『揚雄·校獵賦』: ‘東瞰目盡.’ 『班固·東都賦』: ‘瞰四裔而抗稜.’”

83) “同瞰. 與覲矚竝通.”

84) “窺者, 『說文』: ‘窺, 正視也.’ 『後漢書·章帝八王』傳: ‘使御者, 偵伺得失.’ 偵與窺通.”

85) “窺, 正視也. 从穴中正見也, 正亦聲.”

86) “問也. 从人貞聲.”

다. 『孟子』의 '왕이 사람을 시켜 夫子를 염탐하였다.'라고 한 것과 같다."⁹³⁾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覷'에 '염탐하다'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說文·門部』에서 "間, 사이. '門'과 '月'의 뜻을 따른다."⁹⁴⁾라고 하였다. 『定聲·乾部』에서 "사이. '門'에 달이 보이는 것을 따른다. 會意이다. 古文은 '門'과 '外'를 따른다. 내가 볼 때, 안에서 밖을 보게 되면 한가함이 있게 된다.……(轉注)……사이가 있으면 엿볼 수 있다. 『爾雅·釋言』에서 '間, 보다'라고 하였는데, 注에서 『左傳』에서 말하는 '염탐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자세히 쓰는 것이다. 『廣雅·釋詁三』에서 '間, 살피다.'라고 하였다."⁹⁵⁾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間'에 '염탐하다'의 뜻이 있어 '覷'의 뜻과 통함을 알 수 있다.

5) 司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覷	 합21555	 司母辛 方鼎		司

『廣雅疏證·釋詁一』에서 '覷'에 대해 "覷는 『方言』에서 '覷, 보다. 江北에서는 '覷'라고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글자를 '伺'로 적기도 하고 '司'로 通用해 쓰기도 한다."⁹⁶⁾라고 하여 '司>(*stjæg)를 '覷>(*stjæg)의 通字로 풀이하였다.

『說文·見部』에 '覷'를 수록하지 않고 있다. 『集韻』에서 '覷'에 대해 "원래 '伺'로 썼다."⁹⁷⁾라고 하였다. 『說文·人部』의 新附字에 '伺'가 있는데, "伺, 바라보다. '人'의 뜻을 따르고, '司'의 소리를 따른다."⁹⁸⁾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覷'가 '伺'의 異

93) "引伸爲闕伺之義. 如『孟子』: '王使人瞞夫子.'是."

94) "間, 隙也. 从門从月."

95) "隙也. 从門見月, 會意. 古文从門从外. 按, 從內而見外, 則有間也. ……(轉注)……有間則可窺."

『爾雅·釋言』: '間, 覷也.' 注: '『左傳』謂之謀.' 今之細作也. 『廣雅·釋詁三』: '間, 覷也.'

96) "覷者, 『方言』: '覷, 視也. 自江北或謂之覷.' 字或作伺, 通作司."

97) "本作伺."

體字로써 그 本義가 '바라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說文·司部』에서 “司, 신하가 밖에서 일을 보는 것이다. ‘后’를 반대로 한 것을 따른다. 무릇 ‘司’에 속하는 글자들은 모두 ‘司’를 따른다.”⁹⁹⁾라고 하였다. 『定聲·頤部』에서 ‘司’에 대해 “〔轉注〕『周禮·師氏』에서 ‘왕조를 살피다.’라고 하였고, 『媒氏』에서 ‘男女가 배우자가 없는 것을 살피다.’라고 하였는데, 그 注에서 ‘살피다의 뜻과 같다.’라고 하였다. 『漢書·高五王』傳에서 ‘사물로 여기고 살피다.’라고 하였는데, 注에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⁰⁰⁾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司’의 引伸義인 ‘살피다’의 뜻이 ‘覘’의 ‘보다’의 뜻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6) 睪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睪				睪

『廣雅疏證·釋詁一』에서 ‘睪’에 대해 “睪은 『方言』에서 ‘서로 몰래 보다. 南楚에서는 ‘睪’라고도 한다.’라고 하였는데, 注에서 ‘또한 ‘瞿’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睪’와 ‘瞿’는 말이 전환된 것이다. 『玉篇』에서 ‘瞿, 보다.’라고 하였다. 『廣韻』에서 ‘瞿’로 적었다. 글자가 모두 ‘睪’와 같다. 각 본에서 ‘瞿’로 잘못 적었는데, 지금 바로 잡는다.”¹⁰¹⁾라고 하여 ‘睪’(*liarh)과 ‘瞿’(*ljær)을 같은 말에서 전환된 글자로 풀이하었다.

『說文·目部』에 ‘睪’, ‘瞿’, ‘瞿’, ‘睪’ 등의 글자는 없다. 『康熙字典·目部』에서 ‘瞿’에 대해 “보는 모양. 『類篇』에서 ‘瞿, ‘睪’로도 쓴다.’라고 하였다.”¹⁰²⁾라고 하

98) “伺, 候望也. 从人司聲.”

99) “司, 臣司事於外者. 从反后. 凡司之屬皆从司.”

100) “〔轉注〕『周禮·師氏』: ‘司王朝’, 『媒氏』: ‘司男女之無夫家者.’ 注: ‘猶察也.’ 『漢書·高五王』傳: ‘以爲物而司之.’ 注: ‘察視之也.’”

101) “睪者, 『方言』: ‘凡相窺視, 南楚或謂之睪.’ 注云: ‘亦言瞿也.’ 瞿, 睪, 語之轉. 『玉篇』: ‘瞿, 視也.’ 『廣韻』作瞿. 字並與睪同. 各本譌作瞿, 今訂正.”

102) “視貌. 『類篇』: ‘或作瞿睪.’”

였는데, 이를 통해 '瞽'와 '瞶'라 '瞽'의 或字이고, 그 뜻이 '보는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康熙字典·目部』에서 '瞽'에 대해 “『玉篇』에서 '보다'라고 하였고, 『類篇』에서 '구하다. 일설에 따르면 찾아 보는 모양이다.'라고 하였다.……『集韻』에서 '觀와 같다.'라고 하였다.”¹⁰³⁾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瞽'가 '觀'의 同字이고, 그 뜻이 '보다', '구하다', '찾아보는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說文·見部』에서 '觀'에 대해 “구하다. '見'의 뜻을 따르고, '麗'의 소리를 따른다. '池'와 같이 읽는다.”¹⁰⁴⁾라고 하였다. 『說文解字注·見部』에서 '觀'에 대해 “구해 보다. '視'字가 각 판본에서 누락되었는데, 지금 보충한다. 구해 보는 것은 구해서 찾아보는 것이다.”¹⁰⁵⁾라고 하여 '觀'의 本義가 '구하다'가 아니라 원래 '구해 보다'였음을 지적하였다. 『定聲·隨部』에서 '觀'에 대해 “『吳都賦』의 注에서 『蒼頡篇』을 인용하여 '찾아 보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글자를 '瞞'로도 쓰고, '瞞'로도 쓴다. 『史記·屈賈』傳에서 '九州를 보면서 임금을 보필한다.'라고 하였다. 『索隱』에서 '두루 보다'라고 하였고, 『後漢·馬融』傳의 注에서 '瞞, 보다.'라고 하였다.”¹⁰⁶⁾라고 하였는데, '觀'에 '구해 보다.', '찾아 보다.', '두루 보다' 등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7) 瞶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瞶			瞶	瞶

『廣雅疏證·釋詁一』에서 '瞶'에 대해 “瞶, 역시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瞶'은 '瞶'을 말하는 것이다. 卷2에서 '瞶, 작다.'라고 하였다. 『方言』에서 '무릇 서로 몰래보는 것이다. 南楚 지역에서는 “瞶”이라고도 한다.'라고 하

103) “『玉篇』: '視也.' 『類篇』: '求也. 一曰索視貌.' ……『集韻』: '與觀同.'”

104) “求也. 从見麗聲. 讀若池.”

105) “求視也. 視字各本奪. 今補. 求視者, 求索之視也.”

106) “『吳都賦』注引『蒼頡篇』: '索視之兒.' 字亦作瞶. 作瞶. 『史記·屈賈』傳: '瞶九州而相君兮.' 『索隱』謂: '歷觀也.' 『後漢·馬融』傳注: '瞶, 視也.'”

였다. 王延壽의 「王孫賦」에서 '몰래보고 훑쳐본다.'라고 하였다."¹⁰⁷⁾라고 하여 '瞷'(*tsuj)의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의 뜻이 '窺'(*tsuj)의 '작다'의 뜻과 연관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說文·目部』에 '瞷'은 없다. 『康熙字典·目部』에서 '瞷'에 대해 “『類篇』에서 '보다'라고 하였다. 揚子の『方言』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무릇 서로 몰래 보는 것을 南楚 지역에서 “瞷”이라고도 했다.'라고 하였다.”¹⁰⁸⁾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瞷'의 本義가 '살펴보다'임을 알 수 있다. 『說文·艸部』에서 '窺'에 대해 “窺, 青, 齊, 沆, 冀 등의 지역에서 나무의 가는 가지를窺이라고 한다. 艸의 뜻을 따르고, 窺의 소리를 따른다.”¹⁰⁹⁾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窺'의 本義에 '가늘다'의 뜻이 있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의 뜻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8) 瞶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瞶			瞶	瞶



『廣雅疏證·釋詁一』에서 '瞶'에 대해 “瞶은 『說文』에서 '瞶, 보는 것이 놀란 모양이다.'라고 하였고, '瞶, 눈을 크게 뜨고 보다.'라고 하였다. 「東都賦」에서 '서쪽 도읍 손님이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하였다.'라고 하였다. '瞶'과 '瞶'은 모두 '瞶'과 같다. 重言하면 '瞶瞶'이라고 하는데, 뜻이 「釋訓」에 보인다.”¹¹⁰⁾라고 하여 '瞶'(*kwjak)을 '瞶'(*kwjak)의 同字로 풀이하였다.

『說文·目部』에는 '瞶'이 없다. 『集韻』에서 '瞶'에 대해 “瞶과 같다.”¹¹¹⁾라고 하

107) “瞷, 亦小視之名. 瞷之言窺也. 卷二云: '窺, 小也.' 『方言』: '凡相窺視, 南楚或謂之瞷.' 王延壽 「王孫賦」云: '眙瞷而眙眙.'”
 108) “『類篇』: '視也.' 揚子『方言』: '伺視也. 凡相窺視, 南楚或謂之瞷.'”
 109) “窺, 青齊沆冀謂木細枝曰窺. 从艸窺聲.”
 110) “瞶者, 『說文』: '瞶, 視遽兒也.' 瞶, 大視也. 「東都賦」云: '西都賓瞶然失容.' 瞶, 瞶, 竝與瞶同. 重言之則曰瞶瞶, 義見「釋訓」.”
 111) “同瞶.”

였다. 『說文·目部』에서 “瞷, 눈을 크게 뜨고 보다. ‘目’의 뜻을 따르고, ‘夔’의 소리를 따른다.”¹¹²⁾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瞷’의 本義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瞿部』에서 “瞿, 새가 달아나려고 하다. 오른손으로 새를 잡는 뜻을 나타내었다.……일설에 따르면 ‘보는 것이 급한 모양의 뜻이 있다.’¹¹³⁾라고 하였다. 『說文解字注·瞿部』에서 ‘瞿’에 대해 “일설에 따르면 ‘보는 것이 급한 모양의 뜻이 있다. 앞의 뜻은 매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뒤의 뜻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東都賦』에서 ‘西都의 손님이 갑자기 당황하였다.’라고 하였는데, 善注에서 ‘놀라 보는 모양이라고 인용하여 注解하였다.”¹¹⁴⁾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瞿’의 ‘보는 것이 급한 모양의 뜻이 ‘瞷’의 ‘눈을 크게 뜨고 보다.’의 뜻과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9) 瞻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合17681			占				瞻

『廣雅疏證·釋詁一』에서 ‘占’에 대해 “占은 『方言』에서 ‘무릇 서로 몰래 보는 것을 南楚 지역에서는 “占”이라고도 한다.’라고 하였는데, ‘占’은 ‘瞻’과 같다. 『說文』에서 ‘占, 조짐을 보고 묻다.’라고 하였는데, 그 뜻 역시 같다.”¹¹⁵⁾라고 하여 ‘瞻’(*tjam)으로 ‘占’(*tjam)을 풀이하였다.

『說文·卜部』에서 “占, 조짐을 보고 묻다. ‘卜’과 ‘口’의 뜻을 따른다.”¹¹⁶⁾라고 하였고, 『目部』에서 “瞻, 임해 보다. ‘目’의 뜻을 따르고, ‘詹’의 소리를 따른다.”¹¹⁷⁾

112) “瞷, 大視也。从目夔聲。”

113) “瞿, 佳欲逸走也。从又持之, 夔夔也。讀若『詩』云‘穰彼淮夷之穰’, 一曰視遽兒。”

114) “一曰視遽兒。前義自鷹隼言。後義自人言。『東都賦』: ‘西都賓夔然失容。’善注引: ‘驚視兒。’”

115) “占者, 『方言』: ‘凡相竊視。南楚或謂之占。’占猶瞻也。『說文』: ‘占, 視兆問也。’義亦同。”

116) “占, 視兆問也。从卜从口。”

117) “瞻, 臨視也。从目詹聲。”

라고 하였다. 『定聲·謙部』에서 ‘占’에 대해 “〔聲訓〕『廣雅·釋言』에서 ‘占, 바라보다.’라고 하였다.”¹¹⁸⁾라고 하여 ‘瞻’으로 ‘占’의 뜻을聲訓하였는데, 이를 통해 ‘占’과 ‘瞻’의 소리와 뜻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0) 𥇑, 佇

『廣雅』字				『疏證』字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楷書
		𥇑	佇			𥇑	佇, 佇

『廣雅疏證·釋詁一』에서 ‘佇’에 대해 “佇는 『說文』에서 ‘眙, 똑바로 보다.’라고 하고, ‘佇, 오래 똑바로 보다.’라고 하였다. 『楚辭·九章』에서 ‘美人을 생각함이며, 눈물을 흘리며 오래 똑바로 보네.’라고 하였다. ‘佇’와 ‘佇’는 通하고, ‘佇’는 ‘佇’를 말하는 것이다. 『爾雅』에서 ‘佇, 오래이다.’라고 하였다.”¹¹⁹⁾라고 하여 ‘佇’(*drjagx)를 ‘佇’(*drjagx)의 通字라고 하고, ‘佇’(*drjagx)로써 ‘佇’를 풀이하였다.

『康熙字典』에서 ‘佇’에 대해 “『楚辭·九歌』에서 ‘열매가 열린 계수나무가지에서 오래도록 서 있네.’라고 하였는데, 『王逸註』에서 ‘佇, 서다.’라고 하였다. 원래 ‘佇’로 적었다.”¹²⁰⁾라고 하였다. 『說文』에 ‘佇’는 없다. 「目部」에서 “佇, 오래 똑바로 보다. 일설에 따르면 ‘눈을 크게 뜨다.’의 뜻이 있다. ‘目’의 뜻을 따르고, ‘佇’의 소리를 따른다.”¹²¹⁾라고 하였다. 「人部」의 新附字에 ‘佇’가 있는데, “오래 서다. ‘人’과 ‘佇’의 뜻을 따른다.”¹²²⁾라고 하였다. 『說文解字注·目部』에서 ‘佇’에 대해 “오래 똑바로 보다. 『外戚傳』에서 ‘새 궁궐을 꾸미고, 오래 똑바로 보았다.’라고 하였는데, 이 ‘佇’는 바로 ‘佇’의 잘못이다. ‘延佇’는 ‘오래 보다’의 뜻이다. 무릇 辭章에서

118) “〔聲訓〕:『廣雅·釋言』: ‘占, 瞻也.’”
 119) “佇者, 『說文』: ‘眙, 直視也.’ ‘佇, 長眙也.’ 『楚辭·九章』云: ‘思美人兮, 擘涕而佇眙.’ 佇與佇通. 佇之言佇也. 『爾雅』: ‘佇, 久也.’”
 120) “『楚辭·九歌』: ‘結桂枝兮延佇.’ 『王逸註』: ‘佇, 立也.’ 本作佇.”
 121) “佇, 長眙也. 一曰張目也. 从目宁聲.”
 122) “久立也. 从人从宁.”

'延佇'를 말하는 것 역시 모두 '佇'로 적어야 한다. 『說文』에는 '佇'와 '佇'字가 없고 오직 '佇'字만 있다. '佇', '佇', '佇' 모두 '서다'의 뜻이다. '延佇'는 '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九章」에서: 「美人을 생각함이며, 눈물을 흘리며 오래 똑바로 보네。」라고 하였는데, 王逸이 '오래 똑바로 보고 서 있으면서 슬퍼하였다.'라고 하였다. 『文選注』에서 '佇眙, 서서 보다.'라고 하였다. 이 글자의 뜻이 '서다'이다. 그러하니 '오래 똑바로 서서 보는 것 역시 안 될 것이 없다.'¹²³⁾라고 하였다. 『定聲·豫部』에서 '佇'에 대해 "오래 똑바로 보다. 일설에 따르면 '눈을 크게 뜨다.'의 뜻이 있다. '目'의 뜻을 따르고, '佇'의 소리를 따른다. 글자를 '佇'와 '佇'로도 쓴다."¹²⁴⁾라고 하였다. 또 '佇'에 대해 "[假借] '佇'로도 쓰인다.……『詩·燕燕』에서 '오래 똑바로 서서 울었다.'라고 하였다. 『爾雅·釋詁』에서 '佇, 오래이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모두 '佇'의 인신된 뜻이지 '佇'에서 인신된 것이 아니다."¹²⁵⁾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佇'와 '佇'는 異體字이고, 本義는 '오래 서다'이며, '오래 똑바로 서서 보다.'의 뜻에서 인신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이상으로 王念孫이 그의 疏證에서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글자로 제시한 同字, 通字 등을 분석하여 異體字, 假借字, 同源字를 구별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3) "長眙也. 「外戚傳」: 「飾新宮以延佇」此佇正佇之誤. 延佇謂長望也. 凡辭章言延佇者亦皆當作佇. 『說文』無佇, 佇字. 惟有佇字. 佇, 佇, 佇皆訓立. 延佇非謂立也. 「九章」: 「思美人兮. 擘涕而佇眙」王逸云: 「佇立悲哀」『文選注』: 「佇眙, 立視也」此則訓立. 然作佇眙亦無不可."

124) "長眙也. 一曰張目也. 从目佇聲. 字亦作佇, 作佇."

125) "[假借]爲佇. ……『詩·燕燕』: 「佇立以泣」『爾雅·釋詁』: 「佇, 久也」實皆佇引申之義, 非引申于佇也."

	廣雅	異體字		假借字		同源字		計
		同聲符	非同聲符	同聲符	非同聲符	同聲符	非同聲符	
1	睞			題		睞		2
2	略			略				1
3	覲	瞻			時			2
4	闕					瞰, 闕		2
5	窺						偵	1
6	覲	睞				間		2
7	眇	覲						1
8	睞	窺						1
9	視	伺				司		2
10	瞭		瞭, 瞭				齏	3
11	覲		覲					1
12	睞			俾, 賴	辟			3
13	睞	覲		倪				2
14	睞				夷			1
15	眇	昏						1
16	睞					蔓		1
17	睞		曠			豐		2
18	啓			啓				1
19	占						瞻	1
20	覲		覲		狙, 胥			3
21	睞		迨					1
22	貯					貯, 佇		2
計		7	6	6	5	9	3	36
		13		11		12		

위의 통계에 따르면 王念孫이 ‘視’義字 疏證에서 밝힌 同字, 通字 등의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글자가 총 22組의 36字이고, 이 중 異體字가 12組의 13字, 假借字가 8組의 11字, 同源字가 10組의 12字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비중이 36%의 異體字, 33%의 同源字, 31%의 假借字 순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王念孫의 『廣雅疏證』에서 보이는 “或作~, 亦作~, 通作~, 與~同, 與~通, 聲義相近, 聲近義同, 語之轉” 등의 용어가 異體字, 假借字, 同源字 등을 구분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91年.
胡繼明, 『『廣雅疏證』同源詞研究』, 巴蜀書社, 2003年.
『『廣雅疏證』中的同源詞研究』,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Vol. 25, 2004年.
黃侃 箋識, 黃焯 編次, 『說文同文』, 『說文箋識四種』, 上海古籍出版社, 1983年.
王念孫, 『廣雅疏證』, 江蘇古籍出版社, 2000年.
許慎 撰, 徐鉉 等 校定, 『說文解字』, 中華書局, 1992年.
章太炎, 『文始』, 上海人民出版社, 1999年.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武漢市古籍書店, 1983年.
東方語言學, <http://www.eastling.org/>
小學堂, <http://xiaoxue.iis.sinica.edu.tw/>

〈Abstract〉

The Etymological Study in Synonyms of Chinese Character 'Shi(視)

Shu, Han-Yong

Guang-ya(廣雅) compiled by Zhang Ji(張揖), in about A.D. 227, is a dictionary of synonyms. Wang Nian-sun(王念孫) discriminated among synonyms by Guang-ya-shu-zheng(廣雅疏證) in about A.D. 1795. In his book, Wang Nian-sun(王念孫) annotated synonyms of Chinese characters in Guang-ya(廣雅). At the same time, he also tried to find out the homophonic and synonymic relationship in Chinese characters. These are the foundation of the graphonomy of Chinese characters. So we can say, Wang Nian-sun(王念孫) made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theoretical construction to the etymology of Chinese characters.

The outstanding dictionaries of Chinese characters were Shuo-wen(說文) by Xu-shen(許慎), Shuo-wen-jie-zi-zhu(說文解字注) by Duan Yu-cai(段玉裁) and Shuo-wen-tong-xun-ding-sheng(說文通訓定聲) by Zhu Jun-sheng(朱駿聲). These

books described Chinese characters and also analyzed the homophonic and synonymic relationship in Chinese characters. The representative dictionaries in the etymology of Chinese characters was Wen-shi(文始) by Zhang Tai-yan(章太炎). The homophonic and synonymic relationship in Chinese characters was described and analyzed in this book.

This report consists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gives the purpose of the etymological study in synonyms of Chinese character 'Shi(視)'. The second chapter gives analysis of the Yi-ti-zi(異體字) in synonyms of Chinese character 'Shi(視)' in Guang-ya-shu-zheng(廣雅疏證). The third chapter gives analysis of the Jia-jie-zi(假借字) in synonyms of Chinese character 'Shi(視)' in Guang-ya-shu-zheng(廣雅疏證). The fourth chapter gives analysis of the Tong-yuan-zi(同源字) in synonyms of Chinese character 'Shi(視)' in Guang-ya-shu-zheng(廣雅疏證). This report also gives analysis of the etymological study in synonyms of Chinese character 'Shi(視)' in Shuo-wen(說文), Shuo-wen-jie-zi-zhu(說文解字注), Shuo-wen-tong-xun-ding-sheng(說文通訓定聲), and Wen-shi(文始). The concluding chapter provides the summary of the preceding chapters and the description of conclusion.

Key Words: Wang Nian-sun, Guang-ya-shu-zheng, synonym, etymology, Shi(視)

이 논문은 2017년 4월 14일에 접수되어 2017년 5월 12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5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